

“이미지는 상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다”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 펴낸 이은기 교수



문학평론가 김 현의 《한국문학의 위상》(문학과지성사)에는 문학의 운명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나와 있다. 18세기 이전에 글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호하는 지배계층의 이념과 도덕을 그가 속한 사회에 확대·전파하는 일을 맡았다. 파트롱이라고 불리는 보호자에게 글쓰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헌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 보답으로 파트롱들은 글쓰는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졌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보호계층이 몰락함으로써 글쓰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중요한 탐구대상으로 개성과 상상력을 설정하고 그것을 대담하게 노출시킨다. 개성과 형태에 대한 열망이 거기서 생겨났다. 문학은 정치에서 벗어나면서 독자성, 자율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복수처럼 불행과 탄식의 인간이 탄생한다.

역사의 문맥 속에서 그림 읽어내야

미술의 역사도 이런 문학의 운명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미술이 하나의 예술장르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획득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 미술가들은 교황이나 군주 혹은 귀족들의 후원 아래 작품을 제작하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미술을 하나의 완성된 조형품으로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문맥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은기 교수(52, 목원대 미술대)가 펴낸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시공사)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생산된 르네상스 미술을 통해 동시대와 미술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탐구한 성과물이다. 그의 말처럼 작품은 ‘결작’이라는 허상을 벗어버림으로써 과거의 실체로 드러

이 책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생산된 르네상스 미술작품을 통해 동시대와 미술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탐구한 성과물이다. 14세기 공동자치체 아래의 공공미술, 15세기 메디치가의 미술후원과 가문을 위한 주문들 그리고 16세기 중엽 공작 치하에서 미술이 정치도구로 변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은기 교수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도 않으며 그 의미도 고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나고 관객은 이를 매개로 과거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흔히 미술작품을 그 자체로 숭고하며 천재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도 않으며 그 의미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대 이전까지 미술은 작품성이나 예술성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교황이나 군주, 귀족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목적의식 아래 제작됐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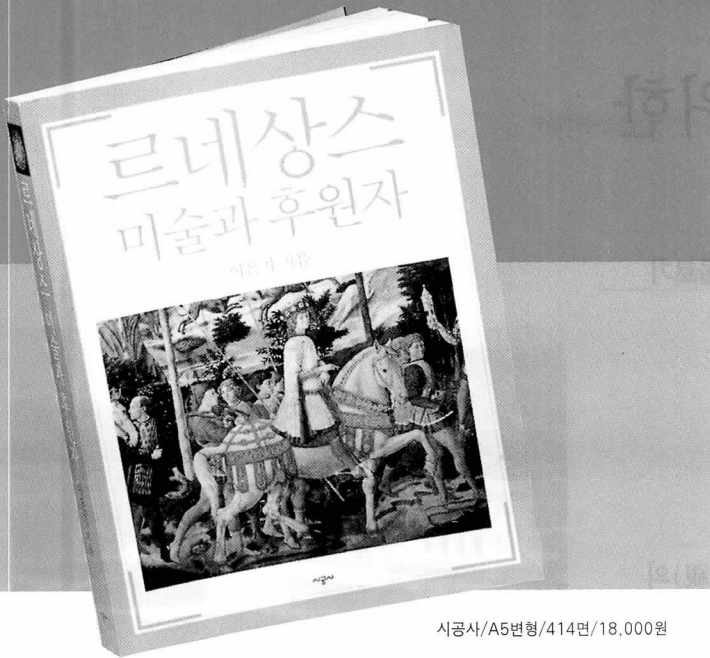
하나의 미술작품을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책은 14세기 공동자치체 아래의 공공미술, 15세기 메디치가의 미술후원과 가문을 위한 주문들 그리고 16세기 중엽 공작 치하에서 미술이 정치도구로 변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 후원자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이나 가문의 이미지를 조각하거나 변형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해간다.

14~15세기 피렌체의 가족 예배실 벽화는 종교의 시대에서 국가와 개인의 시대로 이행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중세 말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됐을 때 상인부유층들은 이윤추구에 따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에 면죄금을 내고 자신의 묘를 안치한다. 교회는 종교주제를 정하고 후원자가 화가를 선택한다. 14세기에는 후원자의 의도가 그림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지만 점차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가족의 사적인 사건이 그림의 주제로 등장한다.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 미술도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수집된 고대조각품은 부와 권력의 과시용으로 변해갔으며 상류사회의 유행품목이 되자 모조품이 성행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 후원의 상징인 메디치는 가문의 지위향상과 정치선전을 위해 미술가들을 동원했다. 특히 코시모 1세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의 주문형태는 17, 18세기에 지배자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예술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도 후원자의 입김은 어김없이 스며 있다. 16세기 초 로마는 정치적



시공사/A5변형/414면/18,000원

인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교회와 로마를 수호하고자 한 교황은 영화로 왔던 고대의 로마를 상기시킴으로써 분위기를 긍정적인 낙관론으로 쇄신하고자 했다. 그는 신학과 인문학, 현대와 고대를 결합해 황금시대를 보여주고자 했고 예수 이전의 고대까지도 포용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상했다.

르네상스 후원자 가운데 이채로운 인물이 한명 있다. 만토바의 후작부인 이사벨라 테스테가 그 주인공인데, 그녀는 신화이야기를 주문하고 고대 조각을 수집했으며 수많은 초상화를 제작했다. 그녀의 후원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숙함이란 주제를 주문한 것이 그 하나인데, 이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한 로마와 피렌체에서 유행하던 고대 조각의 모조품을 수집하는데, 주변국 귀족으로서 중성문화권 취향을 모방하는 고급기치에 머물렀다.

르네상스 시대 미술애호의 성격은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르네상스 미술이 이미지를 매개로 한 전달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에 따라 주문자의 요구는 조금씩 변해왔다. 르네상스 미술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었다. 미술은 부가 있는 곳에 함께 했으며 부는 또한 권력과 짝을 맺고 있었다.

“후원자들의 요구는 당대의 정치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공화정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후원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데 미술을 동원하지 못했죠.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작품제작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군주제 치하에서는 정치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코시모 1세처럼 초상화를 통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문자들의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교수는 덧붙인다. 주문자도 당시의 시대의식이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망이 미술작품에 반영되더라도 당시의 이념이나 이상형, 예컨대 고전고대의 영웅적 인간상, 인문주의

적 학풍 등에 맞춰서 주문의 기호나 취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문자도 당대의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주문자의 요구와 작가의 창의력은 보완관계

이런 주문자의 요구에 미술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방적으로 순응하면서 자신의 예술적인 천품을 주문자에게 저당잡혀버렸을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항 내지 항거하면서 자기세계를 창조하는 데 매진했을까. 미켈란젤로가 상대적으로 거부하는 쪽에 섰다면, 라파엘로는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이교수는 말한다.

“당시 화가들은 주문자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에 대해 화가마다 대응방식은 조금씩 달랐죠. 그렇다고 해서 주문자들의 요구가 미술의 발전을 제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식과 양식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페데리코 몬테펠트로의 경우 플랑드르 회화기법을 실험해 독자적인 양식을 낳았죠. 주문자의 요구와 작가의 창의력은 대립구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처럼 명시적인 후원자가 사라진 오늘날의 상황은 어떨까. 이교수는 오늘날에도 미술작품 속에는 목적의식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든다. 미국에서 클린턴 선거운동 때 클린턴이 케네디와 악수한 사진을 선거전략으로 삼았는데, 그가 케네디의 위업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미지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현대는 르네상스 시대처럼 교황이나 군주, 귀족이 후원자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자본가가 숨어 있는 후원자일 테죠. 후원자의 성격이 바뀌고 표현양식도 달라졌지만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으려 하겠죠. 우회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현대회화가 르네상스 미술보다 우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대전·박천홍 기자

한국에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 일의 어려움

이교수에게 책의 내용과는 무관한 질문을 던져봤다. 한국에서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는 연구자의 정체성 문제가 개입해 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조심조심 말문을 열었다.

“모든 서양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과연 국내에서 서양의 연구수준을 능가하는 독창적인 해석이나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서양의 연구결과에 내가 벽돌 한 장이나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시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김교수는 반문한다. 서양에서 미처 보지 못하거나 놓치는 것들을 제3의 시각에서 해석했을 때 기존과는 다른 해석이나 연구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거죠. 동양에서 이미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극 이용한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개인 초상화의 경우 서양과 달리 인물이 죽은 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영정을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동서양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미술작품에 대한 좀더 풍부한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죠.”